

인적자본으로서 여성교육의 의미

이미정*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의 미약한 효과는 한국여성 교육의 인적자본(human capacity)으로서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오늘날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열망이나 여성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회의 지적은 여성 스스로나 일반인들에게 교육이 인적자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교육은 인적자본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여성의 교육이 인적자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를 검토하려고 할 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과 함께 여성이 일할 경우에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명백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를 함께 고려해서 여성 전생애에 걸쳐 나타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검토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비농업부문에서 여성경제활동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해 여성 전생애에 걸쳐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검토해 보려고 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여성이 일하는 기간은 아주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젊은 여성에게서는 잘 나타나는 편이었지만 나이 든 여성의 경우에는 미미한 편이었다. 젊은 여성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취업기간은 극히 짧고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자본으로서 교육의 의미는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발전연구소

1. 연구배경

한국의 고학력 여성의 낮은 노동시장참여는 고급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더불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여성의 경제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에 따르면,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한다(Bowen & Finegan, 1969; Cain, 1966). 미국과 영국과 같은 선진국가의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Bowen & Finegan, 1969; Sweet, 1973; Woodhall, 1973). 이들 나라에서는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는 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여러 개발도상국가의 경우는 교육과 노동시장참여 간의 관계가 구미 선진국에서처럼 명확히 정(+)의 관계를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초급대학이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보다 더 활발히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cht, 1978; Smock, 1981; Youssef, 1974; Wainerman, 1982). 그러나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교육효과가 198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김수곤·심경옥, 1984; 김영화, 1988; 이주호, 1995; Bai & Cho, 1995; Park, 1990; Shin, 1990). 이러한 한국의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한국의 사례가 교육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미시수준의 이론을 반박하는 사례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사례는 그 원인규명 과정을 통해서 미시수준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히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이미정, 1996).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여성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교육의 미약한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되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산업화는 여성에게 농업 외의 근대적 부문에서 일할 수 있는 취업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었지만, 그 취업의 내용은 대부분 저학력자를 위한 것이었다. 같은 기간동안 초급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경우는 교직 외에 그들이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특히 고학력 여성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임금만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일과 관련된 위신과 사람들의 평가가 깊숙히 개입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위신을 손상

시키면서까지 아무 일이나 하려고 하지 않는다(Blumberg & Dwaraki, 1980; Oppenheimer 1969). 1980년대에는 서비스직 계열의 화이트칼라 직종이 확대되어 가기는 했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졸 학력자의 급격한 증가로 고학력자의 구직난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남성 고학력자가 과잉공급된 상태에서 고용주가 여성 고학력자를 부차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의 효과가 미진한 이유를 거시적 차원에서 요약하자면, 고학력 여성이 구직활동을 벌이는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여성 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것이다(이미정, 1996).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는 풍부한 고학력 남성인력과 여성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고학력 남성인력의 부족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고학력 여성이 그 자리를 채울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학력 붉은 그러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교육의 미미한 효과의 원인은 여성의 일이라고 인식되는 서비스직의 화이트칼라 직종의 성장이 고학력 여성인력을 흡수할 만큼 충분하지 못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외견상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한정된 자리를 놓고 함께 경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일자리를 놓고 함께 경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분업은 직업, 작업장, 직급, 업무분담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은 놀라울 정도로 성별에 따라서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Oppenheimer, 1969). 이것은 단지 한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고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역시 관찰되고 있다. 차이점은 한국의 경우 성(性)에 따른 직종분리현상이 위의 나라들에서 보다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여성이 일하기에 적합한 서비스직의 화이트칼라 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여성을 대거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었으며(England & Farkas, 1986; Jephcott, 1962; Oppenheimer 1969; Ruggie, 1984), 그것은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교육효과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고학력 여성 공급에 비해서 그러한 종류의 일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여성의 교육이 노동시장에서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여성의 경우 교육이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서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의 교육이 인적 자본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토해보려고 한다.

2. 연구 내용

오늘날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교육의 기능으로 시민의식의 형성, 폭넓은 기초지식의 습득 등 여러 가치를 꼽을 수 있지만, 직업적 커리어(career)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것이 점차 더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교육이 가져다 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보상이 지니는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대중교육(mass education)의 확산과 더불어 진행되어 왔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중교육의 확산 이전에 교육은 상류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이였다. 그당시 상류계층은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가 폭넓은 인문지식을 함양한 교양인이 됨으로써, 가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기를 원했다(Goldin, 1992; Warner et al., 1994). 이 경우 교육은 인적자본을 쌓아가기 위한 투자행위이기보다는 지식이나 학문을 배우는 것 자체를 즐기는 소비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을 받는 것은 미래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을 기대하는 투자행위이기 때문에, 대학교육까지 받은 자녀가 졸업에 즈음하여 직업과 관련된 구직활동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좋은 교양교육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한다면 부모나 주위 사람들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일반인들의 이러한 반응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투자행위로 인식하는 관점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약하다는 것은 여성의 교육이 직업지위를 성취하는 것과 그것을 통해 경제적 보상을 얻는 것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여성교육의 인적자본으로서 의미가 작다는 것을 부분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고학력 여성의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것을 사회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여성의 교육도 미래의 직업지위와 경제보상을 위한 투자행위여야 한다는 시각을 반영한다. 젊은 고학력 여성들이 보이는 취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의도 또한 일반인들의 시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교육을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럼에

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교육의 인적자본으로서 의미는 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기는 하지만, 일단 진입한 여성의 경우 교육이 제공하는 직업지위와 경제적 보상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성교육이 어느 정도 인적자본으로서 의미를 지니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생에 걸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는가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참여에 관한 교육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요인이 여성이 일하려고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들이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을 할 경우에,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한국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남성의 경우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일하는 여성집단내에서 남성의 경우보다 학력별 임금차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Bai & Cho, 1995). 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은 한국여성에게 분명히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일하는 여성에 한정해서 논의할 때, 교육은 분명 인적자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남성의 경우와 같이 연속적이지도 장기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여성 전생애에 걸친 교육은 과연 인적자본으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일하고 있는 여성에게서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명확히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간이 아주 짧은 경우에 인적자본으로서의 교육의 의미는 작을 수밖에 없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직업적 커리어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자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소용이 없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 않으며, 진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교육에 들인 비용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이나 직급으로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상적 대화에 나타난 일반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확실한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성교육이 인적자본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수준별로 여성들이 얼마나 오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가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을 함께 고려하려고 한다.

3. 자료 및 방법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1985년 여성개발원에 의해 수집된 “여성취업실태조사”이다. 이 자료는 16세에서 65세에 이르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국 표본조사이다. 이 자료는 횡단적(cross-sectional)이고 회고적(retrospective)인 정보를 모두 갖고 있다. 횡단적 부분에는 응답자 여성 자신과 남편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 회고적 부분에는 생애주기(life cycle)에 따른 여성의 과거 경제활동 경험에 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생애주기는 결혼, 첫 자녀 출산, 막내자녀 출산과 같이 중요한 생애사건에 따라서 네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과거의 경제활동 경험은 위의 각 생애단계별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회고적 부분의 자료는 여성의 임금과 일할 확률을 추정하기에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각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임금, 자녀의 나이와 수, 남편의 경제적 지위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그리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한국여성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횡단적 자료를 주로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연령 코호트의 행위가 한 연령의 코호트 전생애 주기에 걸친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코호트 효과를 생애주기 효과와 분리해 낼 수 없기 때문에, 횡단적 자료를 종단적 자료(longitudinal data)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해방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해 왔고, 그 결과 세대간의 의식과 행위의 차이는 현격하게 변화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우는 코호트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행히도,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비농업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이미정, 1996). 1960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비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지 않았다. 비록 위의 기간 동안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활발해졌지만, 본 연구는 기혼여성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횡단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코호트 효과와 관련한 문제는 작아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위의 기간동안 기혼여성 경제활동 행위는 거의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단적 자료에 기초해서 여성의 삶 전체에 걸친 여성교육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연령 코호트간의 차이를 한 연령 코호트의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겠다.

본 연구의 자료인 “여성취업실태조사”에는 4,316명의 기혼여성 응답자에 관한 정보가 있다(〈표1〉 참조). 응답자의 53%가 현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렇게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주 주변적이다. 예를 들면 일하는 여성의 44%만이 정(正)의 수입이 있다고 보고했다(〈표2〉 참조). 다시 말하면, 일하는 여성의 56%가 일을 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수입이 없다고 밝힌 일하는 여성들 대부분은 가족종사자이다(〈표2〉 참조). 게다가, 가족종사자의 76%가 농업부문에 일하고 있다. 1985년 전체 기혼여성의 43.4%가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었다. 1960년에서 1975년에 이르는 시기에 농업부문에 여성노동력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80년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도 전체 일하는 여성 중 농업부문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김수곤·심경옥, 1984). 반면 위의 기간 중, 급격한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는 전체 여노동력은 여성 농업노동력의 3분의 2에도 미치지 못한다(김수곤·심경옥, 1996). 농업부문에 일하는 여성의 72%가 가족종사자로서 일하며 99.8%가 그들 자신의 몫으로 된 수입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 노동의 가치는 그들 남편의 수입에 포함

〈표1〉 한국기혼여성의 종사상 지위분포

종사상 지위	%	빈도수
고용주(employer)	0.9	40
자영업자(self-employed)	11.7	506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22.3	961
피고용자(employee)	17.3	747
실업자(unemployed)	3.3	141
비경제활동자(not economically active)	43.5	1,921
합계	100.0	4,316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85).

1) 일하고 있는 여성의 범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여성은 제외되었다.

〈표2〉 한국여성의 종사상지위별 임금을 받는 자와 임금을 받지 않는 자의 분포 (빈도수, 단위: 명)

종사상 지위	유임금자(有賃金者)	무임금자(無賃金者)	전체
고용주(employer)	39	1	40
자영업자(self-employed)	315	191	506
가족종사자(family worker)	0	961	961
피고용자(employee)	634	113	747
합계	988 (43.8%)	1,266 (56.2%)	2,254 (1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85).

되어 있다.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피고용인이나 자영업의 형태로 일하는 경우에도, 수입이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 일하는 기혼여성의 41%가 가족종사자로서 일하며, 이들 모두는 수입이 없다(〈표2〉 참조).

이런 한국 기혼여성 노동력에 관한 개관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가 얼마나 주변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여성교육에 관한 경제적 보상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종사자, 농업부문 종사자, 수입이 없는 여성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확률을 추정하는 작업을 위해서는 남편의 수입과 종사상의 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남편이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했다.²⁾

4. 로짓분석

1) 로짓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은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로짓모델

2) 전체 표본 중 유배우자(有配偶者) 여성은 87%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혼, 별거, 사별로 인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그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다.

을, 다른 하나는 회귀분석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로짓모형은 여성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여성 노동시장참여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고, 회귀분석모형은 일하는 여성의 경우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정도를 추정하기 위한 것이다. 로짓모형은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회귀분석모형은 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다.³⁾ 이 두 모형의 추정치가 교육수준에 따라서 비교될 것이며, 회귀분석모형에 사용된 표본(sample)은 로짓모형에 쓰인 표본의 일부분이 된다. 로짓모형분석을 위해서, 2,660명의 여성이 선정되었다. 가족종사자, 농업부문 종사자, 수입이 없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일을 하고 있느냐 혹은 하고 있지 않느냐이다. 로짓분석 대상 여성의 30%가 일을 하고 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주, 피고용자나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여성들이다. 생애주기에 걸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자녀출산이나 자녀양육과 같은 여성의 의무와 관련되어 있다(<표4> 참조). 16~29세 여성들은 가정을 형성해 가는 시기에 있는데, 이들 중 계획한 자녀를 아직 갖지 않은 여성이 43%이다. 30~39세 여성 대부분은 자녀출산을 끝마쳤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 40~49세 여성의 경우, 자녀가 점차적으로 학교를 마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여성들의 경우는, 자녀의 일부는 결혼을 했고 일부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16~29세 여성의 저조한 노동시장참여율은 자녀출산과 자녀양육의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 16~29세 여성과 40~49세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해 갖는 책임의 내용은 많이 다르다. 16~29세 여성의 자녀는 집중적으로 신체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반면, 40~49세 여성의 자녀는 교육에 드는 경제적 비용이 필요하다. 30~39세 여성은 그 중간에 해당된다. 40~49세 여성은 자녀를 신체적으로 보살펴주어야 하는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할 경우 쉽게 일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이 부분적으로

3) 이것을 위해 일반적으로 토빗(Tobit)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만일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이 교육에 대한 보상 정도에 따라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회귀분석모형은 바이어스(biased)된 것이고 이러한 상관관계를 고려한 토빗모형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수요와 문화적인 측면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고, 교육에 따른 노동시장참여의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이미정, 1996). 그러므로 교육과 노동시장참여 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가 약하기 때문에,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40~49세 여성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을 설명해준다.

교육을 위해서 범주변수를 사용했다(〈표3〉 참조).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들이 준거집단으로 사용되었다. 네 개의 교육변수의 범주가 제공되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나 그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초급대나 그 이상이다. 본 연구에서 교육은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일할 결정을 내리는 데는 여성의 노동시장 생산성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임금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생산성은 가정에서보다 시장에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가정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려고 할 것이다. 교육이 여성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논리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일군의 미시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주장되어 왔는데(Bowen & Finegan, 1969; Cain, 1966), 그 이면에는 노동시장에 교육받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국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그들 기대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몹시 어렵다.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이 여성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고용주·자영업자’는 여성이 전(前) 생애주기에서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했었나를 나타낸다. 이것은 자료의 회고적 부분에서 구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피고용자의 지위는 대개의 경우 미혼여성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 기혼여성은 고용주나 자영업자로서 일한다. 한국에서는 여성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크게 다르다(Brinton et al., 1995). ‘고용주·자영업자’ 변수를 통해서, 전(前) 생애주기에서 사업 경험이 현재의 노동시장참여확률과 얼마큼 관련이 있는가를 관찰하려고 한다. ‘과거 일 경험; 변수는 결혼 이후에 일을 한 경험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직업과 관련된 커리어는 남성의 경우와는 달리 연속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여성의 연령을 여성의 일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대리변수(proxy)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의 회고 부분에서 과거 일 경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업가 남편’은 남편이 고용주인가 자영업자인가를 나타낸다. 이전의 연구에서, 남편이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경우 여성이 가족종사자로 일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Brinton et al., 1995; Choi, 1994). 본 연구대상에서 가족종사자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사업가 남편’ 효과가 여성이 일할 확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기대되지 않는다. 남편의 수

〈표3〉 로짓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985년 한국여성

	16-65세	16-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종속변수					
일을 함 ^a	.30 (.46)	.21 (.41)	.35 (.48)	.40 (.49)	.22 (.42)
독립변수					
교육					
초등학교 및 이하	.38 (.48)	.18 (.38)	.30 (.46)	.59 (.49)	.81 (.39)
중학교	.26 (.44)	.31 (.46)	.32 (.47)	.19 (.39)	.07 (.26)
고등학교	.30 (.46)	.44 (.50)	.30 (.46)	.16 (.37)	.08 (.27)
대학교	.07 (.25)	.08 (.27)	.07 (.26)	.06 (.23)	.04 (.20)
연령	35.69 (10.04)	26.00 (2.31)	33.93 (2.92)	44.01 (2.76)	55.48 (4.16)
고용주/자영업자 ^b	.13 (.34)	.05 (.20)	.15 (.36)	.26 (.44)	.17 (.38)
과거 일 경험 ^c	1.87 (3.88)	.20 (.69)	1.25 (2.26)	3.66 (4.52)	5.68 (7.00)
사업가 남편 ^d	.22 (.42)	.17 (.38)	.25 (.43)	.26 (.44)	.25 (.44)
남편의 임금 ^e	32.26 (27.72)	32.17 (20.33)	37.95 (30.19)	32.30 (31.47)	15.57 (25.37)
확대가족	.22 (.42)	.25 (.44)	.19 (.39)	.21 (.41)	.26 (.44)
6세 미만 자녀	.36 (.48)	.54 (.50)	.48 (.50)	.04 (.20)	.00 (.06)
합계	2,660	907	933	506	314

주: 1) 위의 숫자는 평균을 의미한다. 연령, 과거 일 경험, 남편의 임금을 제외한 기타 변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a: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은 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류했다.

b: '고용주·자영업자'는 이전 생애주기에서 고용상의 지위를 말한다.

c: '과거 일 경험'은 결혼 이후 이전 생애주기까지 일했던 경험을 말하며, 단위는 년(年)이다.

d: 사업가 남편은 고용주나 자영업자를 나타낸다.

e: 남편임금의 단위는 10,000원이다.

입도 로짓모델에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높은 가계소득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억제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남편이 일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시켰고, 그들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확대가족제로 살고 있는 여성의 비율을 연령을 X축으로 하여 그려보았을 때, U자 형태를 나타낸다. 가장 젊은 코호트의 경우, 확대가족제로 살고 있는 비율은 25%이고 30-39세의 경우 19%이다. 그러나 40-49세 경우 증가하기 시작하여, 가장 나이든 코호트의 경우 26%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연령별 유형은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 젊은 코호트의 경우 나이든 코호트와 비교해 부모가 생존해 있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확대가족제의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나이든 코호트의 경우는 확대가족의 형성은 자녀의 결혼과 관련이 있다. 확대가족제로 사느냐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인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 만일 확대가족의 형태로 사는 것이 가사일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효과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만일 확대가족의 형태로 살면서 여성이 가족성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어린 자녀의 존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로짓분석의 결과

예상했던 대로 교육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표4〉, 〈표5〉 참조).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고 있다. 가장 젊은 코호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에서 초등학교나 그 이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보다 더 높지 않다. 게다가, 40-49세 여성은 가장 높은 노동시장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중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그 이하의 교육을 받은 여성들보다 훨씬 덜 일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이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수곤·심경옥, 1984; Bai & Cho, 1995; Brinton et al., 1995; Park, 1990; Shin, 1990).

미시경제학이론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높기 때문에 가정에 머물러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우

〈표4〉 연령별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분포, 1985년 한국 (단위: %)

	16-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첫자녀 출생 전	18.2	1.0	0.8	0.3
첫자녀 출생 후, 막내자녀 출생 전	24.7	3.6	-	-
막내자녀 출생 후	55.9	53.1	4.7	-
막내자녀 초등학교 재학, 첫자녀 결혼 전	1.2	42.0	76.1	15.3
첫자녀 결혼 후, 막내자녀 결혼 전	-	0.3	18.2	73.9
막내자녀 결혼	-	-	0.2	1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6세 미만 자녀	54.2	48.3	4.0	0.3
전체사례수	907	933	506	314

자료: 한국여성개발원(1985).

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시경제학 이론으로는 한국여성의 경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미시경제학 이론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충분히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그러하지 못하다. 한국 노동시장 여건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여성이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직업지위가 낮고 임금이 낮은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매력적인 좋은 직업은 여성이 장기적으로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약을 갖고 있다. 1980년대에도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은 여전히 수그러들 줄 모른다.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노동력과 여성노동력의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198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

반면, 한국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교육이 아닌 다른 요소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과거에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했던 경험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확률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것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를 잘 반영한다. 기혼여성에 대한 고용기피로 인하여 대부분 기혼여성들은 피고용자로서 일했던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혼 후 여성들은 자영업자나 가족종사자로서 판매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 결혼 전 이러한 분야에 종사했던 여

〈표5〉 생애주기별 비농업부문 노동시장참여 여부에 관한 로짓분석(logit analysis), 1985년
한국여성

	16-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교육				
초등학교 및 이하	-	-	-	-
중학교	.41 (.27)	-.30 (.21)	.61* (.31)	.23 (.74)
고등학교	-.27 (.28)	-.37 (.23)	-.63+ (.38)	.02 (.61)
대학교	.85* (.40)	.23 (.39)	-.25 (.57)	1.22 (.85)
고용주/자영업자				
아니다	-	-	-	-
이다	2.61** (.42)	1.61** (.24)	1.56** (.29)	1.57** (.38)
과거 일 경험	1.20 (.18)	.42** (.05)	.18** (.03)	.11** (.02)
사업가 남편				
아니다	-	-	-	-
이다	-.68* (.29)	-.68** (.21)	-.11 (.27)	-.70 (.44)
남편의 임금	.02** (.01)	-.03** (.01)	-.02 (.01)	-.01 (.01)
확대가족				
아니다	-	-	-	-
이다	-.36 (.23)	.33 (.21)	-.22 (.28)	-.70+ (.41)
연령	-.06 (.04)	-.09** (.03)	-.12** (.04)	-.08+ (.04)
6세 미만 자녀				
없다	-	-	-	-
있다	-.11 (.21)	-.12 (.18)	-.36 (.57)	-6.37 (22.25)
상수(constant)	.43 (1.10)	2.78 (1.14)	1.93** (1.86)	2.12 (2.46)
총사례수	907	933	506	314

주: 1. + $p < .10$, * $p < .05$, ** $p < .01$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3. "-" 표시는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의미함.

성들의 경험은 기혼여성의 일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편이 고용주나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확률이 감소한다. 이것은 젊은 코호트 여성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남편이 사업을 할 경우, 부인은 가족종사자로서 돕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결과는 남편의 고용주나 자영업자로서 지위가 여성이 피고용자로서 일할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의 연구결과와 잘 부합한다(Brinton et al., 1995). 남편의 '수입효과'는 본 결과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수입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은 감소한다.

5. 회귀분석

1)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 검토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대상이 된 여성은 로짓분석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일부분(subsample)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귀분석은 비농업부문에서 양(陽)의 수입을 갖고 일하는 유배우자(有配偶者)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전체 793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표6〉 참조). 이들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임금곡선은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생애주기별로 가파른 임금곡선(lifetime earnings profile)을 그리고 있는 남성의 경우와 비교해서 명확한 대조를 이룬다(Bai & Cho, 1995). 여성의 평평한 임금곡선은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주변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손쉬운 비교를 위해서 로짓과 회귀분석 대상이 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표7〉에 제시했다. 회귀분석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교육수준별 분포를 로짓분석의 대상이 된 여성들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차이가 없다(〈표7〉 참조). 이 단순한 표로부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결정은 그들의 교육수준과 별 상관성이 없다는 것을 쉽게 추측해낼 수 있다. 전체 여성과 비교해 볼 때 일하는 여성의 교육수준은 낮은 편으로 분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교육수준을 지닌 여성은 회귀분석의 경우 47% 달하는 반면 로짓분석의 경우에는 37.5%에 지나지 않는다(〈표7〉 제1행을 참조).

(표6) 회귀분석에 사용되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1985년 한국여성

	20-65세 ^a	20-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종속변수					
로그드(logged) 임금	11.62 (.93)	11.50 (.11)	11.62 (.92)	11.71 (.77)	11.65 (.98)
독립변수					
교육					
초등학교 및 이하	.47 (.50)	.20 (.40)	.40 (.49)	.75 (.44)	.80 (.41)
중학교	.27 (.45)	.39 (.49)	.33 (.47)	.11 (.35)	.06 (.24)
고등학교	.19 (.39)	.31 (.46)	.21 (.41)	.08 (.26)	.07 (.26)
대학교	.07 (.25)	.11 (.31)	.06 (.23)	.01 (.20)	.07 (.26)
일한 경험 ^b	3.43 (4.64)	1.83 (2.41)	2.88 (3.64)	1.73 (5.63)	6.81 (7.45)
주당 근무시간	55.98 (23.59)	51.13 (22.40)	54.89 (23.57)	60.80 (23.50)	60.71 (24.21)
전일제 직장	.80 (.40)	.71 (.45)	.80 (.40)	.89 (.32)	.83 (.32)
버젓한 일터 ^c	.54 (.50)	.53 (.50)	.53 (.50)	.57 (.50)	.51 (.50)
고용주·자영업자 ^d	.33 (.46)	.22 (.41)	.35 (.48)	.35 (.48)	.49 (.50)
연령	36.36 (8.91)	26.10 (2.46)	34.00 (2.90)	43.92 (2.71)	54.16 (3.91)
6세 미만 자녀 ^e	.35 (.48)	.76 (.43)	.43 (.50)	.03 (.17)	.00 (.00)
직업					
생산직	.46 (.50)	.57 (.50)	.46 (.50)	.40 (.49)	.29 (.46)
판매직	.23 (.42)	.15 (.36)	.24 (.43)	.24 (.43)	.39 (.49)
서비스직	.23 (.42)	.11 (.32)	.24 (.43)	.29 (.46)	.28 (.45)
화이트칼라	.08 (.28)	.17 (.37)	.06 (.24)	.06 (.24)	.04 (.21)
합계	793	191	329	201	69

주: 1. 위의 숫자는 평균을 의미한다. 연령, 과거 일 경험, 남편의 임금을 제외한 기타 변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a: 회귀분석의 대상이 되는 여성 중 가장 젊은 나이의 여성은 20세였다.

b: 단위는 연(年)이다.

c: "버젓한 일터"는 더미(dummy) 변수이다. 사무실, 가게,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1값이 주어지고 길거리,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성에게는 0값이 주어진다.

d: '고용주·자영업자'도 더미변수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로 일하는 여성에게는 1값이 주어진다.

e: 6세 미만 자녀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표7〉 회귀분석에 사용된 표본과 로짓분석에 사용된 표본에 나타난 교육수준 분포의 비교, 1985년 한국여성

	16-65세	16-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초등학교					
회귀분석	.470	.196	.395	.746	.797
로짓분석	.375	.179	.302	.591	.809
중학교					
회귀분석	.274	.387	.334	.139	.058
로짓분석	.261	.305	.323	.188	.070
고등학교					
회귀분석	.189	.309	.213	.075	.072
로짓분석	.295	.440	.188	.164	.080
대학교					
회귀분석	.067	.108	.058	.040	.072
로짓분석	.068	.076	.070	.057	.041
전체					
회귀분석	1.000	1.000	1.000	1.000	1.000
로짓분석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사례수					
회귀분석	793	194	329	201	69
로짓분석	2,660	907	933	506	314

자료: 본 연구에서 제시된 〈표4〉와 〈표6〉.

현재 직업에서 일경험은 연령에 따라서 증가한다. 나이든 코호트는 더 오래된 일경험을 갖고 있다. 근무시간도 나이든 코호트의 경우 더 길다. 예를 들면, 주당 근무시간과 전일제 근무자의 비율도 나이든 코호트에서 더 많다. ‘버젓한 일터’(decent workplace)라는 변수는 어떠한 장소에서 여성들이 일하는가를 나타내고 있고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써 처리되었다. 사무실, 가게, 공장과 같은 곳에서 일하는 경우 더미변수 값 ‘1’을 부여하고 기타의 곳에서 일하는 경우 ‘0’의 값을 부여했다. 분석대상 여성의 반 정도만이 버젓한 곳에서 일하고 있고 나머지 반의 여성은 길거리, 남의 집,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변수값 ‘0’을 지닌 여성들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거나, 파출부, 가내생산자로 일하고 있었다. 가내생산자들은 대도시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로서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들이 대부분이

다(Choi, 1994). 다시 말하면, 1980년대 중반 한국의 기혼여성들 대부분은 여타 제 3세계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여성들이 하는 종류에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버젓한 일자리' 변수는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을 반영한다.

고용주로 일하는 여성은 전체 일하는 여성의 4%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영업종사자와 함께 하나의 집단으로 묶었다. 여성의 종사상의 지위를 더미변수로 사용했으며, 준거집단은 피고용자이다. 고용주나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여성은 전체의 33%에 해당한다. 이전의 연구에 따르면(Choi, 1994),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나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서 다르다고 알려져 왔다. 예를 들면, 피고용자 경우에는 대학교육이 여성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서,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주·자영업자' 변수는 교육과 고용상의 지위 간의 관련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표6>에 따르면, 고용주나 자영업자로서 일하는 여성의 비율은 연령과 더불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 또한 통제변수로서 사용되었다. 이것은 범주화된 변수로서 사용되었으며, 준거집단은 생산직 근로자이다. 일하는 여성의 반 정도가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감소하고 있다. 생산직 일은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이든 여성에게는 크게 부담이 된다. 반면에, 서비스나 판매직에서 일하는 여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난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성들이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생산직에서 신체적으로 힘이 덜 드는 일로 이동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회귀분석의 결과

예상한 대로 여성의 교육은 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체 20-65세 여성을 보면, 교육수준에 따라서 여성의 임금은 증가한다. 한 단계 더 높은 교육수준을 성취하는 것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보상이 된다. 이러한 교육효과는 각각의 직업범주에서도 성립한다. 그런데 표본이 코호트에 따라서 나누어졌을 때,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코호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교육의 임금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아주 큰 데 반해서, 나이든 여성에게서는 그러하지 않다. 20-29세 여성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은 각각 그 이하 교육에 비해서 32% 임금을 증가시키고 있다(<표8> 참조). 그러나 여타 임금과 관련된 요인들이 통제되

〈표8〉 비농업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임금에 관한 회귀분석, 1985년 한국여성

	20-65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65세
교육					
초등학교 및 이하					
중학교	.20** (.06)	.32* (.13)	.13# (.08)	.25* (.12)	.04 (.37)
고등학교	.28** (.07)	.32* (.14)	.22* (.10)	.49** (.17)	.32 (.33)
대학교	.53** (.13)	.57* (.25)	.74** (.21)	.25 (.31)	.10 (.53)
일한 경험	.03** (.01)	.12* (.05)	.01 (.03)	.05* (.02)	.03 (.04)
일한 경험 제곱(squared)	-.00 (.00)	.01 (.01)	.00 (.00)	-.00 (.00)	-.00 (.00)
주당 근무시간	.01** (.00)	.00 (.00)	.01** (.00)	.01* (.00)	.00 (.00)
전일제 직장	.72** (.07)	.43** (.14)	.72** (.11)	.78** (.15)	.70** (.26)
버젓한 일터					
아니다					
이다	.37** (.05)	.92** (.13)	.35** (.08)	.19* (.09)	.07 (.19)
고용주/자영업자					
아니다					
이다	.23 (.07)	.09 (.15)	.32** (.10)	.14 (.13)	.54* (.27)
연령	-.00 (.00)	-.01 (.02)	-.01 (.01)	.02 (.02)	-.08** (.02)
6세 미만 자녀					
없다					
있다	-.10+ (.06)	.05 (.11)	-.10 (.08)	.10 (.25)	
직업					
생산직					
판매직	.53** (.08)	.65** (.18)	.57** (.11)	.28+ (.16)	.27 (.32)
서비스직	.51** (.01)	.45** (.16)	.45** (.10)	.41** (.12)	.51* (.23)
화이트칼라	.73** (.13)	.67** (.20)	.64** (.21)	.48+ (.28)	1.58* (.81)
상수(constant)	10.13** (.15)	10.17** (.56)	10.36** (.50)	9.48** (.70)	14.35** (1.38)
Adjusted R ²	.57	.71	.58	.43	.51
합계	765	183	320	195	68

주: 1. + $p < .10$, * $p < .05$, ** $p < .01$

2. '-' 표시는 준거집단을 의미함.

었을 때,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임금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젊은 코호트에서 나타나는 대학교육에 대한 높은 보상은 두드러진다. 대학교육은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경우보다 57%, 고등학교의 경우 보다는 25% 더 높은 임금을 받게 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대학교육의 높은 보상은 30-39세 여성의 경우에 더 명확히 관찰되고 있다. 이들의 경우, 대학교육은 초등학교나 그 이하의 경우보다 74%, 고등학교의 경우 보다는 52% 더 많은 임금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20-29세 여성의 경우 보다는 30-39세 여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젊은 코호트의 경우에는 잘 나타나는 반면, 나이든 코호트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 40-49세 여성의 경우, 임금에 대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의 효과는 존재하지만, 대학교육의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연령집단에서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다른 어떤 집단의 경우보다 크다. 가장 나이가 많은 50-65세 연령층의 경우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에 한정해 볼 때,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교육효과는 주로 젊은 코호트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이든 코호트에서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는 거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과거에 일한 경험이 현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9세 여성의 경우 다른 연령층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이 연령집단에서 과거 1년 동안 일한 경험은 현재 임금을 12%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전일제 근무자는 시간제 근무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평균적으로 전일제 근무자는 시간제 근무자보다 72%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버젓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무실, 가게,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길거리나 남의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 보다 더 많이 번다. 고용주나 자영업자의 지위는 30-39세와 50-59세 여성의 경우에서만 임금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다. 직업도 모든 연령층에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든 연령층에서 일관하여 생산직 근로자는 가장 적게 벌고, 화이트칼라 종사자는 가장 많이 벌고 있다. 판매직과 서비스직 종사자의 임금은 중간 정도에 있다. 젊은 여성들의 경우는 판매직 종사자가 서비스직 종사자보다 더 많이 번다. 반면, 나이든 여성의 경우는 서비스직 종사자가 판매직 종사자보다 더

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교육수준을 지닌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가 임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교육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귀중한 인적자본의 낭비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전의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여성교육은 노동시장참여 가능성과 별 관련이 없다고 밝혀져 왔다. 또 여성이 일할 경우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여성 혹은 일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관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여성과 일하고 있지 않은 여성 모두를 함께 고려했다. 두 집단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여성들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임금에 대한 교육효과와 일할 확률을 추정했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여성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보잘것없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로짓분석을 통해서 교육이 생애주기별 여성 노동시장참여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다. 40-49세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이 오히려 여성 노동시장참여 여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교육은 여성임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에 관한 교육효과는 젊은 코호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교육받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는 미시경제학 이론은 한국의 경우를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한 여성의 경제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 노동시장 상황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산업화가 제공한 일자리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 대한 수요는 완만히 증가해 왔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과 제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여성 일반, 기혼여성에 대한 고용기피는 대체로 작업환경이 좋은 화이트칼라직에서 주로 나타났고,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뿐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은 남성의 노동력 부족현상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 한국여성은 결혼한 상태로 성인기 대부분의 삶을 보내기 때문에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과 기혼여성의 낮은 노동시장참여는 생애주기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교육에 대한 낮은 경제적 보상에 대한 큰 이유가 된다.

기혼여성에 대한 기피와 차별(marriage bar)은 현재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의 과거에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서비스부문이 급격히 팽창함에 따라서 1940년 이후부터 많은 수의 기혼여성들이 화이트칼라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었다(Jephcott, 1962; Oppenheimer, 1969). 1940년 이후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증가는 주로 서비스직 분야에서 창출된 화이트칼라직의 증가로 인한 노동력의 부족현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문화나 경제면에서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도 1970년대 후반부터 기혼여성에 대한 기피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수요구조 변화가 기혼여성 기피에 대한 관행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화이트칼라직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고용기피와 차별이 완화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가 여성 전생애에 걸친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살펴보는 것도 미래의 흥미로운 연구주제일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생애주기별 여성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토해 보았다. 1960년에서 1980년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여성의 경제행위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까닭에 본 결과를 가지고 생애주기에 걸친 해석을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았다.⁴⁾ 앞으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서 종단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여성 전생애에 걸쳐서 나타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교육효과를 좀더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4) 비농업부문에서 경제행위만 고려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곤·심경옥(1984),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요인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김영화(1988), “한국노동시장의 구조적 분절과 남녀 임금 불평등”, 《여성연구》 6(2): 108-151.
- 이미정(1996), “한국 노동시장에서 여성교육의 지활용”, 《한국인구학》 19(2): 107-137.
- 이주호(1995), “여성인력의 수급과 개발”, 〈여성인력 양성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강화〉, 발표 논문, 여성개발원 주최.
-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0-1.
- Bai, Moo Ki and Woo Hyun Cho(1995), *Women's Wages and Employment in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Blumberg, Rhoda Lois and Leela Dwaraki(1980), *India's Educated Women: Options and Constraints*, Delhi: Hindustan Publishing Corporation.
- Bowen, William C. and Aldrich T. Finegan(1969), *The Econom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rinton, Mary C., and Yean-Ju Lee, and William L. Parish(1995), “Married Women's Employment in Rapidly Industrializing Societies: Examples from East Asia”,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5): 1099-1130.
- Cain, Glen G. (1966),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An Economic Analysi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oi, Moonkyung(1994), “Lifetime Occupational Achievement of Female Workers: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 England, Paula and George Farkas(1986), *Households, Emoloyment, and Gender: A Social, Economic, and Demographic View*, New York: Aldine.
- Goldin, Claudia(1992), “The Meaning of College in the Lives of American Women: The Past One-Hundred Years”, Working Paper No. 4099,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Jephcott, Pearl(1962), *Married Women Working*, London: George Allen & Unwin.
- Oppenheimer, Valerie Kincade(1969),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United States: Demographic and Economic Factors Governing its Growth and Changing*

- Composition*, Berkel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 Park, Young Jin (1990), "Women's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Korea: Trends in Levels, Patterns, and Differentials during 1960-1980",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Pecht, Waldomiro (1978),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the Urban Labor Market in Selected Latin Countries: Chile, Costa Rica, Ecuador, and Venezuela", in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Low-Income Countries*, edited by Guy Standing and Glen Sheehan,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pp.27-42.
- Ruggie, Mary (1984), *The State and Working Women: A Comparative Study of Britain and Sweden*, Princeton, N. 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Ho Hyun (1990), *A Study on Schooling and Employment of Married Women in Korea*,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 Smock, Audrey C. (1981), *Women's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Praeger.
- Sweet, James A. (1973), *Women in the Labor Force*, New York: Seminar Press.
- Wainerman, Catalina H. (1982), "The Impact of Education on the Female Labor Force in Argentina, and Paraguay", in *Women's Education in the Third World: Comparative Perspectives*, edited by Gail P. Kelly and Carolyn M. Elliott,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pp.265-279.
- Warner, W. Lloyd, Robert J. Havighurst, and Martin B. Loeb (1994), *Who Shall be Educated?: The Challenge of Unequal Opportunities*, New York: Harper and Brothers.
- Woodhall, Maureen (1973), "Investment in Women: A Reappraisal of the Concept of Human Capital",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19: 9-29.
- Youssef, Nadia Haggag (1974), *Women and Work in Developing Societies*, Westport, CN: Greenwood Press.

abstract

The Meaning of Women's Education as Human Capital

Mijeong Lee

Educational effect 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has been known to be small in Korea. Then, the meaning of women's education as human capital needs to be questioned. Both the increasing desire for working among women and the criticism to under-utilization of women's education in the labor market reflect that women's education is surely perceived as human capital. However, women's education does not seem to function well as human capital in the labor market.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is pointed out that educational effect 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s weak but the effect on earnings is evident. There were few attempts to evaluate economic returns to women's education over the life-cycle analyzing both working and non working women. Considering that the economic behaviors of women in nonagricultural sector have changed little until the mid-1980s, I tried to examine the meaning of education as human capital over the women's life cycle using cross-sectional data. This study shows that the educational effect on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does not exist and the working period is very short. Although the educational effect on earnings among working women is clearly shown, it tends to limited to younger women. Despite the educational effect on earnings among younger women, the meaning of education as human capital among Korean women does not hold well due to short working period and the low participation of the educated in the labor market.

